

##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창      박 미 진      김 수 리<sup>†</sup>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낙관성척도와 우유부단척도는 번안하여 실시하였고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을 측정하는 진로의사결정유형척도와 진로결정척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낙관성과 우유부단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녀차이분석에서는 낙관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우유부단, 직관적 유형, 확신성, 미결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에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였다. 우유부단은 직관적 유형과 확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존적 유형과 진로미결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와 의의와 진로상담에서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낙관성, 우유부단, 진로의사결정,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수준

---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박미진은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김수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근무하고 있음.

<sup>†</sup> 교신저자 : 김 수 리, (100-824)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2-2253-9342, E-mail : suri@kyci.or.kr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자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창, 1997). 보통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들이 시작된다. 대학진학, 취업, 전공 선택 등의 이러한 결정들은 그 개인의 직업은 물론 심리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Mann, Harmoni, & Power, 1989). 그러나 선택과 결정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거나 지연 혹은 의존하게 만들기도 한다.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을 돕는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혹은 최소화할지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Gati & Saka, 2001).

진로문제가 청소년에게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사건이 되는지는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더 분명해진다. 2003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진로(45.7%), 생활태도/습관(28.8%), 학업/학교 부적응(28.7%), 성격(18.1%), 가족(16.5%), 정신건강(10.8%), 대인관계(9.4%), 문제행동(7.9%), 성(3.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민,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2003). 진로문제는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고민거리가 되는 상당한 스트레스 사건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행동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하거나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게 의존한다.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에서 보이는 개인차는 아마도 많은 성격변인들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차를 보이는 원인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임을 시사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Leong & Chervinko, 1996; Scheier & Carver, 1985; Taylor, 1982). 성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는 진로선택에 관한 Parson의 특성요인이론으로 시작한 진로발달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Kjos(1995)는 성격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 의존성, 지연행동, 자기패배적 행동, 완벽성, 대인관계상의 어려움, 불안, 과민함, 극도의 조심, 양가감정 등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을 돕는 효과적인 진로상담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격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효과적인 진로상담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검토해야 한다.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차를 만드는 요인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성격 변인으로는 낙관성(Optimism)이 있다. 낙관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기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할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도록 한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의 개념은 일반화된 기대, 설명양식, 긍정적인 정서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데(김세희, 2003)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낙관성이 개인의 사고, 정서와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낙관성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포기하지 않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며 부정적 정서를 빨리 털어 낼 수 있게 한다. Scheier와 Carver(1985, 1992)의 연구에서 낙관적인 대학생들은

대학입학 후 첫 학기동안 비관적인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덜 우울하며 덜 의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더 지지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졸업 전 학기에도 낙관적인 학생들은 비관적인 학생들보다 감기, 두통과 같은 신체증상을 훨씬 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되거나 요구되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좌절감을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나가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관성은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Creed, Patton과 Bartrum(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변인과 낙관성·비관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인 학생들은 진로계획과 진로탐색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더 확신있게 진로의사결정과 진로목표설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비관성 수준을 보인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진로 및 의사결정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좀 더 미결정수준이 높았고 성취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의 발달에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Petrone(2000)은 고등학생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의사결정능력을 보인 반면 남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혜경(2004)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와 자아강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낙관성은 진로목표와 기대 그리고 진로활동에 참여하도록 고무시키는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발달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Patton, Bartrum, & Creed, 2004).

그러나 어떤 낙관적인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 건강을 잃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할 확률을 간과함으로써 자기보호행동을 덜 하게 된다(Davidson & Prkachin, 1997; Weinstein, 1980). 또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때의 자기책임을 회피하게 하기도 한다(Seligman, 1990). 결국 지나친 낙관성은 과신이나 현실무시 등을 야기하여 자기보호와 예방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나친 낙관성은 낙관적 편향 혹은 긍정적인 착각, 비현실적인 낙관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김세희, 2003; Weinstein & Klein, 1996). 과도한 낙관성이 진로결정과정에서도 역기능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마도 진로결정에 대해 과신하고 현실을 간과함으로써 최종적인 선택이나 진로준비행동을 미루거나 몰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나친 낙관성은 오히려 진로결정과정을 미루는 우유부단이나 지연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어느 정도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점차 현실검증을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되며 진로결정과정의 동인(動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징으로 인해 낙관성은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유부단 역시 진로결정과 연관이 있

을 성격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우유부단 (Indecisiveness)은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 세부적인 것에 대한 집착, 결정할 때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유부단은 완벽주의와 강박증상, 지연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민병배, 원호택, 2000).

우유부단은 대안들 사이에서 느끼는 선택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조작적 정의에 대해 개방적이고 의사결정에 결함과 과도한 부정적 자기대화 그리고 주의결핍과 혼동된 사고과정이 있다. 따라서 우유부단은 습관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우유부단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성격문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2004; Van Marte & Cooper, 1984).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모호성, 불안, 좌절,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낮은 자기확신, 자기존중감, 외적통제를 보인다(Salomone, 1982).

우유부단은 진로미결정과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거나 미결정을 발달적인 문제로 보는 반면 우유부단은 성격적인 성향으로 보아 만성적인 미결정(chronic indecision)이라고도 한다. 우유부단과 달리 진로미결정은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이고 자신과 자신의 직업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연기하기 때문에 결정할 것을 재촉받거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즉, 충분하고 정확한 자기와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결정 단계에 이른다고 본다. 미결정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및 개인이 결정에 도달하고 있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이다 (Osipow, 1999).

Haraburda(1998)의 연구에서 우유부단과 달리 높은 수준의 결단성을 보인 사람들은 미결정한 사람보다 신경증경향이 덜 하고 심리적 증상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결단성을 보인 사람들은 미결정한 사람보다 외향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 자의식등과 같은 성격특성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유부단이 미결정과 다른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낙관성과 우유부단과 같은 성격적 변인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변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들은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진로상태는 간단하게 진로의사결정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결정되었느냐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과정에서 문제라면 얼마나 결정되었느냐는 그 결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을 과정으로, 의사결정수준을 잠정적인 결과로 보았다.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행위로 의사결정유형은 결정자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결론에 이르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정진선,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Harren(1979)은 개인의 의사결정과업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형식,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의사결정유형(decision-making style)이라고 정의하면서 세 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자들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며 진로결정에서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한다. 반면 직관적인 의사결정유형자들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자기인식과

정서, 공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자들은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효과적이라고 보며 이를 증명하는 연구들은 많다. 그런데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의존적 의사결정유형보다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많은 반면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 효과적임을 명쾌하게 밝은 연구는 거의 없다.

Blustein(1987)은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발달간의 관계를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Holland, Magoon과 Spokane(1981)은 많은 진로상담프로그램의 이면에 있는 논리적 가정들이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른 상담접근과 내담자의 의사결정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Krumboltz, Kinner, Rude, Scherba와 Hamel(1986)은 합리적 접근방식이 의존적인 의사결정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밝혀냈지만 Rubinton(1980)은 합리적 접근방식은 합리적 의사결정자뿐 아니라 직관적인 의사결정자에게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Niles, Erford, Hunt와 Watts(1997)는 체계적 혹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을 가진 대학생들이 진로발달과제를 더 잘 해냄을 밝혔다.

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은 진로의사결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결과, 어떤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자에게 일반적인 상담접근방식은 도움이 되지만 직관적이거나 의존적인 유형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상담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과정을

거친 결과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진로가 평생에 걸쳐 경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어떻게 진로가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으로서의 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낙관성과 우유부단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진로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고, 내담자가 가진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성차를 보이는 낙관성을 비롯하여 우유부단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을 성별에 따라 차이분석하였고, 성격적 변인과 진로관련 변인간의 전체적인 영향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으로 모형검증을 하였다. 모형은 낙관성과 우유부단이라는 성격변인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진로상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와 어느 정도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과정으로 보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의사결정수준을 잠정적인 결과로 보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낙관성과 우유부단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 둘째, 성별로 낙관성과 우유부단,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셋째, 낙관성과 우유부단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과 광주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개교 4학년, 여학생 2개교 4학급을 대상으로 총 248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시간은 약 3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수거한 248부 중 무응답이 많은 20부를 제외한 228명(남자 고등학생 1학년 58명, 2학년 56명, 여자 고등학생 1학년 63명, 2학년 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

#### 낙관성

낙관성은 Scheier, Carver와 Bridges가 1994년에 개정 보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LOT-R (Life Orientation Test-Revised)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번안한 후 척도번안의 경험에 있는 박사학위수료자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 번안을 결정하였다. LOT-R에서 측정하는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으로 정의되었다. LOT-R은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3개 문항은 긍정적 진술문항이며, 3개 문항은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한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끼어 넣은 문항들(filler items) 문항이며 채점에서 제외된다. 이 질문지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사용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LOT-R의 Cronbach's  $\alpha$ 는 .68로 나타났다.

#### 우유부단

Germeijs와 De Boeck(2002)은 일반적인 우유부단성을 측정하기 위해 11가지 특성을 기초로 22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11가지의 특성에 따라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개발되어 총 22문항이 되었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된 이유는 반응경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매우 동의한다-6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Germeijs와 De Boeck(2002)은 주요인분석으로 22개의 문항이 단일한 차원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eigenvalues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5개였으며 각 요인의 eigenvalues 값은 8.02, 1.72, 1.48, 1.13, 1.06으로 첫 번째 요인의 eigenvalues 값이 두 번째 요인의 값보다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리 테스트를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22 문항 중 한 문항만이 .40의 로딩값을 보였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1이었다. 척도의 번안은 연구자가 하였고 이후 척도번안의 경험에 있는 박사학위수료자에게 검토를 받아 최종 번안을 결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요인이 나왔으나 원칙도와 유사하게 한 개의 요인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진로의사결정유형

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의사결정유형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의사결정

유형검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고향자(1992)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3개 하위척도로 나뉜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의사결정유형검사의 Cronbach's  $\alpha$ 는 합리적 유형 .81, 직관적 유형 .76, 의존적 유형 .82로 나타났다.

### 진로결정척도

Osipow 등(1980)이 개발하고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변안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처음의 2문항은 진로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교육과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며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문항 1, 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지만,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자(1992)가 변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고향자(1992)에 의하면 CD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반분신뢰도는 .80,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확신성 .81, 미결정 .84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남녀 고등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9.0과 AMOS 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낙관성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또한 낙관성,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 및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차이검증

표 1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낙관성과 확신성은 정적 상관( $r=.228, p<.01$ )을 보였으며, 진로미결정 수준과는 부적 상관( $r=-.188, p<.01$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부단과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은 다소 높은 부적 상관( $r=-.359, p<.01$ )을, 우유부단과 진로미결정은 정적 상관( $r=.353, p<.01$ )을 보여주었다. 또한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과 확신성은 정적 상관( $r=.384, p<.01$ ),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확신성은 정적 상관( $r=.169, p<.05$ )을 나타냈다. 합리적 유형과 미결정은 정적 상관( $r=.135, p<.05$ ), 직관적 유형과 미결정은 다소 높은 정적 상관( $r=.342, p<.01$ ), 의존적 유형과 미결정은 다소 높은 부적 상관( $r=-.485, p<.01$ )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낙관성과 우유부단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낙관성, 우유부단,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의 상호 상관관계(N=228)

변 인	1	2	3	4	5	6	7
1 낙관성	1.00						
2 우유부단	-.349**	1.00					
3 합리적 유형	.233**	-.165*	1.00				
4 직관적 유형	.156*	-.193**	-.026	1.00			
5 의존적 유형	-.155*	.485**	.018	.138*	1.00		
6 확신성	.228**	-.359**	.384**	.169*	-.084	1.00	
7 미결정	-.188**	.353**	-.091	.135*	.342**	-.485**	1.00

주. \* $p < .05$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t검증

변 인	남(N=114)	여(N=1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낙관성	20.85 (3.68)	21.27 (4.12)	-.813
우유부단	63.98 (15.24)	70.32 (14.63)	-3.204**
합리적 유형	26.20 (5.43)	25.91 (5.23)	.410
직관적 유형	24.78 (5.09)	23.14 (4.72)	2.521*
의존적 유형	21.00 (5.54)	21.98 (5.55)	-1.325
확신성	4.87 (1.73)	3.98 (1.91)	3.698***
미결정	33.90 (8.49)	36.68 (9.40)	-2.343*

주. \* $p < .05$  \*\* $p < .01$  \*\*\* $p < .001$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낙관성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 낙관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표 2에 의하면 우유부단 수준에 있어서 남·녀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 = -3.204, p < .01$ ). 즉, 여학생의 경우 우유부단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직관적 유형에서 남·녀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

여주었으며( $t = 2.521, p < .05$ ), 남학생의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확신성에 있어서 남·녀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t = 3.698, p < .001$ ), 남학생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정 수준에 있어서 남·녀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343, p < .05$ ), 여학생의 진로에 대한 미결정 수준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낙관성,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83.498$ , 자유도=4,  $p=0.000$ ,  $q=20.875$ , GFI=0.915, AGFI=0.404, NFI=0.736, RMSEA=0.296으로 최적모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90.688$ , 자유도=11,  $p=0.000$ ,  $q=8.244$ , GFI=

0.9073, AGFI=0.764, NFI=0.713, RMSEA=0.179 등의 지수를 얻었다. 이들 지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나쁘지 않은 부합도를 보였으므로 본 검증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표 4와 표 5는 본 검증모형의 경로계수와 직간접 효과의 결과이다.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을 가지고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접 영향을 받을 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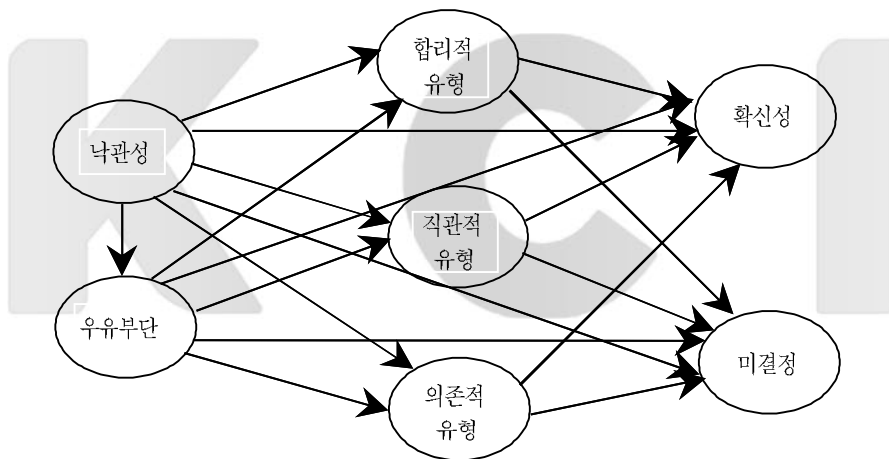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3. 검증모형의 부합도 평가

모형	$\chi^2$	df	p	q	GFI	AGFI	NFI	RMSEA
연구모형	83.498	4	0.000	20.875	0.915	0.404	0.736	0.296
검증모형	90.688	11	0.000	8.244	0.907	0.764	0.713	0.179

표 4. 경로모형 분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p
낙관성 → 우유부단	-.349	.243	-5.615	.000
낙관성 → 합리적 유형	.233	.088	3.605	.000
우유부단 → 의존적 유형	.485	.021	8.349	.000
우유부단 → 직관적 유형	-.193	.021	-2.962	.003
우유부단 → 확신성	-.280	.007	-4.743	.000
우유부단 → 미결정	.305	.041	4.363	.000
합리적 유형 → 확신성	.344	.020	5.936	.000
직관적 유형 → 미결정	.171	.111	2.790	.005
직관적 유형 → 확신성	.125	.022	2.123	.034
의존적 유형 → 미결정	.173	.111	2.516	.012

표 5. 검증모형의 변인별 영향력

	낙관성	우유부단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우유부단	전체효과	-.349	.000	.000	.000
	직접효과	-.349	.000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합리적 유형	전체효과	.233	.000	.000	.000
	직접효과	.233	.000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직관적 유형	전체효과	.067	-.193	.000	.000
	직접효과	.000	-.193	.000	.000
	간접효과	.067	.000	.000	.000
의존적 유형	전체효과	-.169	.485	.000	.000
	직접효과	.000	.485	.000	.000
	간접효과	-.169	.000	.000	.000
확신성	전체효과	.186	-.304	.344	.125
	직접효과	.000	-.280	.344	.125
	간접효과	.186	-.024	.000	.000
미결정	전체효과	-.124	.356	.000	.171
	직접효과	.000	.305	.000	.171
	간접효과	-.124	.051	.000	.000

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경로분석을 살펴보면, 표 4, 5와 같이 우유부단( $\beta=-.280$ ), 합리적 유형( $\beta=.344$ ), 직관적 유형( $\beta=.125$ )이 확신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 $\beta=.186$ )과 우유부단( $\beta=-.024$ )이 확신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우유부단( $\beta=.305$ ), 직관적 유형( $\beta=.171$ ), 의존적 유형( $\beta=.173$ )은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낙관성( $\beta=-.124$ ), 우유부단( $\beta=.051$ )은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 유형에 낙관성( $\beta=.233$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관적 유형에는 우유부단( $\beta=-.193$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낙관성( $\beta=.067$ )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존적 유형에는 우유부단( $\beta=.485$ )이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낙관성( $\beta=-.169$ )은 간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낙관성은 우유부단( $\beta=-.349$ )과 합리적 유형( $\beta=.233$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은 직관적 유형( $\beta=.067$ )과 의존적 유형( $\beta=-.169$ ), 확신성( $\beta=.186$ ), 미결정( $\beta=-.124$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우유부단은 직관적 유형( $\beta=-.193$ ), 의존적 유형( $\beta=.485$ ), 확신성( $\beta=-.280$ ), 미결정( $\beta=.305$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신성( $\beta=-.024$ )과 미결정( $\beta=.051$ )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었다. 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합리적 유형은 확신성( $\beta=.344$ )에, 직관적 유형은 확신성( $\beta=.125$ ) 및 미결정( $\beta=.17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의존적 유형은 미결정( $\beta=.173$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낙관성과 우유부단,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과 우유부단,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확신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낙관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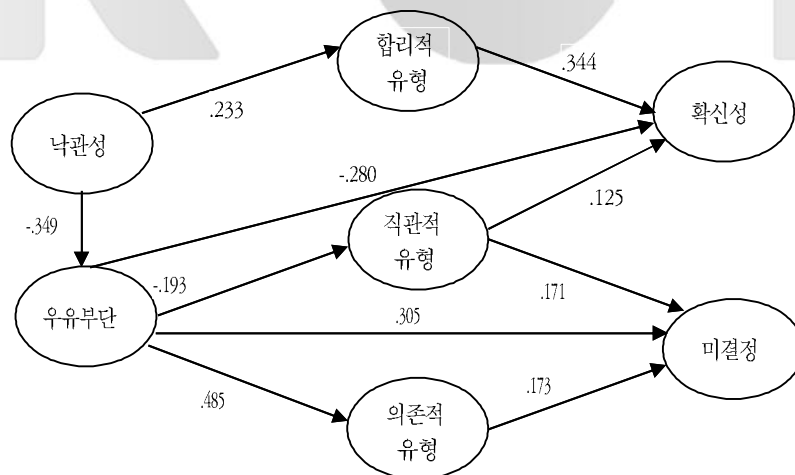


그림 2. 검증모형

확신성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유부단은 확신성에 직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확신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낙관적 성향이 높고 우유부단 성향이 낮으며, 합리적 혹은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낙관성과 우유부단,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은 진로 미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낙관성은 진로 미결정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고 우유부단은 진로 미결정에 직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모두 미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낙관적 성향이 낮고 우유부단 성향이 높으며, 직관적 혹은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할수록 진로 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낙관성이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낙관성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는 우유부단이 직접적인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낙관성이 간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유부단 성향이 낮고 낙관적일수록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존적 유형에 대해서는 낙관성이 간접적인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우유부단이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관성이 낮고 우유부단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서 의사결정유형을 과정으로, 의사결정수준을 잠정적인 결과로 보아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낙관성과 우유부단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진로상담시 고려해야 할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관련 연구들은 진로탐색 행동, 진로태도 성숙의 진단, 혹은 진로결정 상태의 유형화 등 주로 진단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진로선택과 관련된 개인 내적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차를 보이는 원인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낙관성과 우유부단에 있다고 가정하고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낙관성과 우유부단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확신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존적 유형과 미결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유부단은 의존적 유형, 미결정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확신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비교적 확실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낙관성이 높을수록 합리적 혹은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유부단이 높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며 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관성과 우유부단,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우유부단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확신성, 미결정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의 낙관성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Petrone(2000)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낙관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적 성향과 진로 미결정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관적 유형과 진로에 대한 확신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고향자, 1992; 김동준, 1997)와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구조와 진로장벽이 여성의 진로결정을 지연케 하고 진로결정에 대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이렇게 내면화된 소극적인 태도가 우유부단한 성격 특징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직관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고 진로결정 확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에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인 학생들이 더 확신있게 진로의사결정과 진로목표설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reed, Patton, & Bartrum, 2002)와 같이 낙관성은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낙관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 수준의 발달에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유부단은 직관적 유형과 확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존적 유형과 진로 미결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유부단은 대안들 사이에서 느끼는 선택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습관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는 정의에 비추어 보면, 우유부단한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의존적이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이다. 한편,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 낙관성은 긍정적 간접 영향을 미쳤으며, 우유부단은 부정적 직접 영향을 미쳤다.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확신성과 미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낙관성이 여러 진로 대안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선택하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나, 뚜렷한 진로정보 없이 진로를 선택하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청소년들이 진로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확신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존적 유형과 미결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유부단은 의존적 유형, 미결정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확신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로선택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진로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에서 내담자들이 보일 수 있는 비관성은 의존성

과 미결정과 관련됨으로 상담과정에서 이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내담자의 경우, 진로문제 외의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우유부단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관성과 우유부단,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수준을 차이검증해본 결과, 낙관성,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고, 우유부단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확신성, 미결정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유부단한 여학생들의 진로 상담 실제에서 진로 결정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증진시키기 이전에, 독립적이고 명확하게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결국 성별, 개인 내적 정서 및 설명양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상담 개입은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특수성을 띄어야 하며 동시에, 성격 특성과 진로문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수준에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진로발달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진로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게 하여,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유부단은 직관적 유형과 확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존적 유형과 진로미결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로미결정이 발달과정에서 정

상적이고 자신과 자신의 직업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연기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나, 우유부단한 성격적 특성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이는 청소년의 진로미결정은 진로상담시에 성격적 특성 및 회피의 주제와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낙관성은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간접 영향을 미친 반면 우유부단은 부정적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성과 미결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진로상담시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자들에게는 진로미결정자의 진로 확신에 대한 문제가 다뤄져야 하고 진로 확신과 미결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접근방식의 고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과 수준에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다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본 연구에서 설명된 낙관성, 우유부단과 같은 성격 특성 이외에 다른 성격적 특성,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인 및 사회문화적 변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 진로의사결정 상담모형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수의 문제로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표집의 한계로 인해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연구대상에 고등학교 3학년이 제외되어 학년에 따른 낙관성, 우유부단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변화나 발달 양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혜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민,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2003). 우리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동준 (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2003).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배, 원호택 (2000). 강박 증상 및 걱정과 관련된 성격 특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659-679.
- 이재창 (1997). 미래사회를 대비한 청소년 진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14, 117-155.
-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3(1), 125-146.
- 장윤정 (2004). 완벽성향 우유부단과 의존성향 우유부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선 (200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lustein, D. L. (1987). Integrating caree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omprehensive treatment strategy. *Psychotherapy*, 24, 794-799.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 42-61.
- Davidson, K., & Prkachin, K. (1997). Optimism and unrealistic optimism have an interacting impact on health-promoting behavior and knowledge changes. *Personality and Psychology Bulletin*, 23, 617-625.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75-186.
- Gati, I. & Saka, N. (2001). High school students' career-related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331-340.
- Germeijs, V., & De Boeck, P. (2002). A measure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 Haraburda, E. M. (1998). *The relationship of indecisiveness to the five factor personality model and psychological symptom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wkins, J. G., Bradley, R. W., & White, G. W. (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98-403.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Holland, J. L., Magoon, T. M., & Spokane, A. R. (1981). Counseling psychology: Career interventions, research, and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279-305.
- Kjos, D. (1995). Linking career counseling to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592-597.
- Krumboltz, J. D., Kinner, R. T., Rude, D., Scherba, D. S., & Hamel, D. A. (1986). Teaching a rational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Who benefits mos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1-6.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 Lucas, M. S., & Epperson, D. E.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82-388.
- Mann, L., Harmoni, R., & Power, C. (1989). Adolescent decision making: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Journal of Adolescence, 12*, 265-278.
- Niles, S. G., Erford, B. T., Hunt, B., & Watts, R. H. (1997).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8*, 479-488.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Patton, W., Bartrum, D. A., & Creed, P. A. (2004). Gender differences for optimism, self-esteem, expectations and goals in predicting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in adolescents. *Internat. Jn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4, 193-209.
- Petrone, M. M. (2000). Measuring competence for career decision making. (Doctoral Dissert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and Engineering*, 61(6-B), 3308.
- Rubinton, N. (1980). Instruction in career decision making and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81-588.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cheirer, M. F., & Carver, C. S. (1985).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687-699.
- Scheir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himizu, K., Vondracek, F. W., Schulenberg, J. E., & Hostetler, M. (198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Similarities across selected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13-225.
- Seligman, M. (1990).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Pocket Book.
- Taylor, K. M. (1982).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 Correlates and moder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Van Matre, G., & Cooper, S. (1984). Concurrent evaluation of career indecision and indecisivenes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637-639.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nstein, N. D., & Klein, W. M. (1996). Unrealistic optimism: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 1-8.

원 고 접 수 일 : 2005.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18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 Effects of Optimism and Indecisiveness to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Level of Adolescents

Jae-Chang Lee

Mee-Jin Park

Su-Ri Kim

Hongi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effects of optimism and indecisiveness to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level of adolesc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8 students from high schools in Seoul and Gwangju area. A set of tests(Life Orientation Test-Revised, Indecisiveness Scal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Decis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t-test, path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optimism and indecisiv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level. Also,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indecisiveness,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level by gender. Optimism and indecisivenes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level. Results and counseling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optimism indecisiveness,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areer decision level*